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대학생의 부모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 자아분화와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 인 영

2016년 8월

대학생의 부모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 자아분화와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최 보 영

김 인 영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6월

김인영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년 8월

<국문초록>

대학생의 부모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
자아분화와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김인영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최보영

본 연구는 대학생의 부모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와 정서표현양가성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주도에 있는 대학생 4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회수된 416부 중 40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 도구로는 부모화 척도, 대인관계문제 척도, 자아분화 척도, 정서표현양가성 척도를 사용하였고, 수집한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와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부모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와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화는 자아분화, 정서표현양가성, 대인관계문제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가졌다.

둘째, 부모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와 정서표현양가성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아분화와 정서표현양가성 모두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즉, 부모화가 대인관계문제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으나, 자아분화와 정서표현양가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학생의 부모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확인하였고 대인관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자아분화 수준을 높이며, 정서를 통한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요어 : 부모화, 대인관계문제, 자아분화, 정서표현양가성, 매개효과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7
3. 연구모형	8
4. 용어의 정의	9
II. 이론적 배경	11
1. 부모화	11
2. 대인관계문제	14
1) 대인관계문제의 개념	14
2) 부모화와 대인관계문제	15
3. 자아분화	17
1) 자아분화의 개념	17
2) 부모화와 자아분화	19
3) 자아분화와 대인관계문제	20
4. 정서표현양가성	22
1) 정서표현양가성의 개념	22
2) 부모화와 정서표현양가성	24
3) 정서표현양가성과 대인관계문제	25
III. 연구 방법	27
1. 연구대상	27
2. 측정도구	28
3. 자료분석	32

IV. 연구 결과	33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33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33
2)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34
2. 매개효과 검증	35
1) 부모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35
2) 부모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	37
V. 논의 및 결론	39
1. 결과에 대한 논의	39
2. 연구에 의의 및 제언	41
【참고문헌】	44
【Abstract】	54
【부 록】	56

표 목 차

표 III-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7
표 III-2. 부모화 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	28
표 III-3. 대인관계문제 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	29
표 III-4. 자아분화 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	30
표 III-5. 정서표현양가성 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	31
표 IV-6.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결과	33
표 IV-7. 부모화, 자아분화, 정서표현양가성, 대인관계문제의 상관	34
표 IV-8. 부모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36
표 IV-9. 부모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37

그림 목 차

그림 I-1. 연구모형 1	8
그림 I-2. 연구모형 2	8
그림 IV-3. 부모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36
그림 IV-4. 부모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38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전 생애에 걸쳐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삶을 만들어간다.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으며 함께 삶을 살아가야 할 여러 영역의 사람들과 갈등 없이 친밀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권석만, 2010; 김종운, 양민정, 2014).

아동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의 대인관계는 그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인생에 있어서 대학생 시기는 대인관계의 측면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 시기는 대인관계가 가장 활발한 시기로 동시에 가장 많은 대인관계 갈등을 경험하는 시기다. 또한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는 시기로 부모-자녀 견해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삶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탐색과 고민이 시작된다(권석만, 2010). 이 시기에 중요한 발달과제는 자기정체감을 확립하고 친밀한 대인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친밀한 대인관계를 만드는 능력을 기르지 못하면 타인과 안정된 관계를 맺기 어렵고 이후 고립감과 소외감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권석만, 1995). 또한 대학생 시기의 대인관계문제는 원만한 대학생활과 이후 가정 및 성인기 사회생활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유은영, 윤치근, 양유정, 2010) 대학생 시기에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단국대 대학생활상담센터 '2012학년도 상담결과 보고자료'(대학저널 2013-4-6)에 따르면 대학상담센터를 찾는 대학생들의 상담 내용이 주로 진로나 대인관계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에 진행한 899건의 개인상담 가운데 37%인 332건이 진로에 관한 상담이며 그 다음으로 대인관계 24%(216건), 성격 23%(207건), 가족관계 8%(72건), 학교적응 8%(72건)순으로 상담을 한 것으로 집계되어 대인관계로 인한 대학생들의 어려움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생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크게 가정환경적 요인

(박금란, 2012; 윤희영, 2013; 이동욱, 2015), 개인내적 요인(김여량, 2013; 안재희, 2015; 최지선, 2011), 외부환경적 요인(강지연, 2011; 최경하, 2007) 등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대인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요인으로 가족관계를 주목하여, 부모-자녀관계를 가장 중요한 인간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점을 볼 때(박영호, 2006) 부모-자녀관계는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부모-자녀의 관계적 맥락과 관련한 문제 중에 ‘부모화(parentification)’ 현상이 있다. 부모화는 부모가 자녀에게 현실적이지 않은 기대를 하거나, 부모의 기대대로 행동하게 할 때 발생하게 된다. 부모가 아이의 의존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면 아이는 충성심으로 인해 부모를 돌보는 역할을 하게 되며, 어렸을 때부터 지나치게 많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를 부모화 현상이라고 부른다. 물론 자녀가 성장하면서 점차 부모의 역할을 습득해가는 것은 정상적인 발달의 과정이고, 가족 체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녀가 부모의 역할을 일부분 대신하거나, 부모를 위로하는 것은 유연성 있는 가족 체계의 특성이기도 하다(김용태, 2000). 그러나 Bowlby(1973)는 “역전된 부모-자녀 관계(inverted child-parent relationships)”의 심각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자녀가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를 보살피는 행동을 하게 되면 이후 성인기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배려하고 보살피는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부모 및 타인에 대한 배려 행동의 이면에 나타나는 병리적인 위험성을 언급하였다(조은영, 2004).

부모화된 자녀는 유년기적 발달에 필요한 요구와 행동을 희생하면서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물리적, 정서적 필요를 돌보게 되고(Jurkovic, Thirkeild, & Morrell, 2001; Jurkovic, 1997), 이들의 안녕을 책임짐으로써, 그들의 애착대상이 되기 쉽다(Byng-Hall, 2002). 부모화된 자녀들은 그들의 행동을 성인기까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이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그들의 행동이 가족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가족들의 암묵적 기대에 의해 반복되기 쉽고, 매우 바람직하게 여겨져 강화받기 때문이기도 하다(조은영, 2004). 따라서 부모화된 자녀들의 심리적 특성은 어린 시절에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주로 후기 청소년기와 성인초기 전환기에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으로 나타나게 된다(Teyber, 2006).

한국에서의 부모-자녀관계는 부모-자녀간의 일심동체(一心同體)적 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최상진, 2000).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분신이자 소유물이라고 여겨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는 한편, 이것을 자식에 대한 정(情)이라고 함으로써 자녀들을 심정적으로 여리게 만든다. 이는 자녀가 부모와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부모에 대한 배려와 순종을 유발하게 할 수 있다(최상진, 김혜숙, 유승엽, 1995). 또한 사회변화에 따라 부모가 갈등상태이거나 별거 및 이혼가정, 재혼 가정, 다문화 가정 등으로 가족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예전과는 달리 저출산 시대로 인해 한 두 자녀에게 부모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어 이러한 부모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이현아, 2011).

이렇게 부모화된 자녀들은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었는데 친밀감 형성, 신뢰감 갖기, 소외감, 진실한 관계 갖기에서 어려움을 보였으며(전소연, 2010; 조은영, 2004; 하예린, 2015) 부모화 경험이 많을수록 대인관계에서 타인을 지나치게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그들의 요구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고(마수영, 2009; 문비, 2006; 문정덕, 2006) 특히 불공평을 많이 경험할수록 대인관계문제를 더 경험할 수 있다(선진, 2013). 일찍부터 가정 내에서 과도한 희생을 통해 주고받음이 공평하지 못한 경험을 한 경우 가정 이외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이어질 수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관계 중심적인 사회로써 부모-자녀사이가 상호의존적이며 정서적으로 가까워지기 쉽다. 이를 설명하는 것으로써 보웬(Bowen)의 자아분화 개념을 들 수 있다. 자아분화는 보웬의 이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으로, 개인의 사고와 정서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 뿐 아니라 정서적 성숙 정도와 함께 자신의 가정으로부터 개별화된 정도를 의미한다(Kerr & Bowen, 1988). 보웬은 가족들이 서로 의존하는 관계에서 벗어나 얼마나 자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의 감정적인 과정을 분화라고 한다면 개인의 융합된 상태는 가족들 간에 감정적으로 분리되지 못하고 서로 고착되어 있는 경우라고 설명한다(김혜숙, 2003). 부모화는 부모가 채우지 못한 자신의 욕구를 자녀로부터 얻으려하는 역동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자녀관계는 확고한 자기에 대한 핵심 감정이 발달되지 못한 채 자녀와 미분화 상태를 발달시키기 쉽다(Miller, 1981). 또한 부모화 경험처럼 가정에서 부모를 대신하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에게 헌신하였던 경우 가족과의 건강한 분리를 이루기보다는 자녀와 가족이 융합될 수 있다(문은미, 2008)는 점에서 부모화와 자아분화와의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다.

조은영(2005)의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화 수준이 높은 자녀일수록 부모에 대해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며, 자아분화 수준이 낮고, 부모로부터 충분한 심리적 독립을 이루지 못해 가족의 갈등에 개입하기 쉬웠다. 또한 부모화 경험은 자아분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불공평을 많이 느낄수록 자아분화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는 불공평이 높을수록 정서적 단절과 가족퇴행 수준이 낮아져, 가정에서 자신이 일방적으로 헌신한다는 불공평한 느낌이 클수록 가족과의 건강한 분리와 상호작용을 방해함을 알 수 있다(구경호, 유순화, 2012; 김은지, 2013; 문은미, 2006).

자아분화와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지민(2010)의 연구에서 자아분화는 대인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자아분화가 낮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쉬우며, 타인과 정서적 융합이 되기 쉬우므로 대인관계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분화는 대인관계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남상철, 2004; 최혜련, 2005),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지은(2006)의 연구에서도 자아분화와 대인관계문제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이는 자아분화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가 적고 이와 반대로 자아분화가 낮을수록 대인관계문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부모화가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대인관계문제와 높은 관련성을 보여주는 변인으로 정서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갈등하는 정서표현양가성을 들 수 있다. King과 Emmons(1990)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도 이를 억제하며 갈등하는 것’을 정서표현양가성이라 정의하였다. 양가성이란 갈등의 한 형태로, 같은 대상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느낌이 동시에 혹은 빠르게 교차하는 것이며, 한 대상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원하지 않는 접근-회피 갈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Emmons & Kaiser, 1995). 정서표현양가성을 가진 경우 표현을 적게 하는 경향이 있어 우울, 불안, 강박, 신체화 장애와 같은 심리적 문제가 나타나며 타인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기 힘들고, 삶의

만족도가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옥경, 2012; 유주현, 2000; 최해연, 2008). 정서 표현양가성을 겪는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여 친밀한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게 되면서 상대방과의 감정적 교류가 원활하지 못하다. 그로 인해 주변 사람의 지지를 끌어내기가 힘들며, 지지를 받더라도 이를 수용하지 못하거나 다른 의미로 해석하게 된다(Emmons & Colby, 1995).

부모화된 자녀들은 부모를 포함한 타인들의 기대와 필요에 따라 행동해왔던 까닭에 정작 자신의 감정과 욕구는 소외되기 쉬우며,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부모에게 표현하지 못한다. 이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기 힘들게 만들며, 우울, 불안을 비롯한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Jurkovic, 1997). 이에 따라 부모화된 자녀들이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을 더 쉽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조은영(2004)의 연구에서는 불공평을 많이 지각하는 사람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지나친 책임의식, 불안과 분노, 불신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경미, 이하나, 정주리, 정현주, 이기학(2006)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화의 하위 요인 중 불공정성을 많이 느낄수록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현아(2011)의 연구에서도 가정 내에서 주고받음이 공평하지 못함을 느끼는 경우 정서표현양가성을 포함한 정서발생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소년의 부모화 경험과 안녕감에 관한 문소희(2014)의 연구에서도 부모화 경험은 정서표현양가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부모화 경험이 정서의 자유로운 표현을 방해하고 갈등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정서표현양가성과 대인관계문제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정서표현양가성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보다 많은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신채영, 유순화, 윤경미, 2013; 이경희, 김봉환, 2010; 장정주, 김정모, 2008).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선화(2014)의 연구에서 정서표현양가성과 대인관계문제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여, 아동의 정서표현양가성과 대인관계문제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대학생의 애착에 관한 연구에서 김용희(2014)는 정서표현양가성이 대인관계에 연관됨을 입증하여 정서를 표현하고 싶지만 이를 억제하고

갈등하는 학생들은 대인관계에서 더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전현수(2013)의 연구에서는 정서표현양가성이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을수록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도 높아진다고 보았다.

한편 부모화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들은 부모화가 이후의 개인의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고하는데 특히 대인관계와 관련된 영역에서 긍정적 결과들이 보고 있다. 부모화가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이 있으며, 부모화 돌봄이 자제력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교사가 보고하는 유능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했다(Kuperminc, Jurkovic & Casey, 2009; Hooper, Marotta, & Lanthier, 2008; MacMahon, Luthar, 2007).

이렇듯 부모화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고는 있으나 여전히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없다. 조은영(2003)은 부모화의 외적 적응성과 효를 중시하는 문화 및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변화하는 개인의 심리를 탐색하지 못했다는데 한국에서 부모화 연구가 부재했던 이유에 대해 들었다. 또한 부모화, 애착, 원가족의 역기능에 따른 문제를 한국인과 미국인을 비교하여 다룬 연구(Giles, 2012)에서 미국인에 비해 한국인의 부모화 수준이 더 높게 나온 것 역시 유교 문화를 기반으로 한 한국적 특수성으로 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그 가운데서 부모화와 같은 가정에서의 경험이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부모화가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대인관계문제와 관련이 높은 자아분화와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 시기에 대인관계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 부모화와 자아분화, 정서표현양가성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대인관계문제를 호소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상담적 접근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부모화와 자아분화, 정서표현양가성이 대인관계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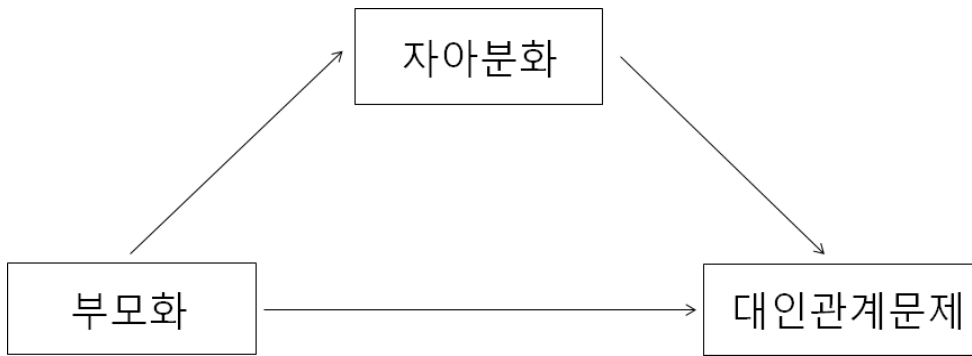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부모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가 매개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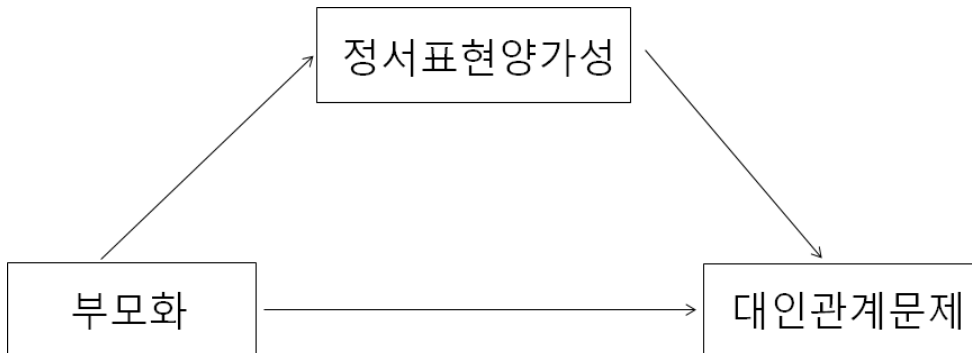
[연구문제 2] 대학생의 부모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이 매개하는가?

3. 연구모형

위의 연구문제를 토대로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I-1> <그림 I-2>와 같다.



<그림 I-1> 연구모형 1



<그림 I-2> 연구모형 2

4. 용어의 정의

1) 부모화

부모화란 보스조르메니 내지(Boszormenyi-Nagy)의 맥락적 가족치료의 기본적 개념의 하나로 아직 자녀가 부모의 역할을 다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역할과 과도한 책임을 비교적 오랫동안 떠맡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Stein, Riedel, & Rotheram Borus, 1999). 부모화는 부모가 자녀에게 현실적이지 않은 기대를 하거나, 부모의 기대대로 행동하게 할 때 발생하게 되는데(김용태, 2000), 부모화된 자녀들의 심리적 특성은 어린 시절에 분명히 드러나기보다 주로 후기 청소년기와 성인초기 전환기에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으로 드러나게 된다(Teyber, 200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속적인 부모와 자녀사이의 역할전이는 자녀가 성장한 이후에도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 간주하고, 부모화의 측정은 Jurkovic과 Thirkield(1999)가 PQ(Parentification Questionnaire, Sessions & Jurkovic, 1986)을 바탕으로 다차원적 분석을 위해 개발한 FRS-A를 조은영(2004)이 변안한 내용을 사용하였으며, 하위요인은 물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불공평으로 이루어져 있다.

2) 대인관계문제

대인관계문제는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대인관계를 만들거나 지속시켜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으로(박경애, 이재규, 권해수, 1998), 대인관계에서 오는 문제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고 생활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진미경, 2013). 특히 성인기 초기 단계인 대학생 시기에 겪는 대인관계문제는 대학생활 뿐 아니라 이후 가정 및 사회적응을 방해할 수 있는 만큼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데서 받

생하는 어려움을 보고자 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Horowitz 등(1998)이 개발하고 Alden, Wiggins, Pincus(1990)가 재구성한 대인관계문제검사를 홍상환 등(2002)이 표준화한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KIIP-SC)을 사용하였다.

3) 자아분화

자아분화는 보웬의 이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으로, 개인의 사고와 정서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 뿐 아니라 정서적 성숙 정도 및 자신의 가정으로부터 개별화된 정도를 말한다(Kerr & Bowen, 1988). 자신의 가정에서 성공적으로 분화되지 못하면 가족관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정서적 문제를 습관적으로 억누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감정 반사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이영분 외, 2008).

본 연구에서는 자아분화가 감정에 치우침 없이 자신만의 자율적인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능력이라고 보고, 자아분화의 측정은 제석봉(1989)의 자아분화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척도는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자아통합,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 등 5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4) 정서표현양가성

King과 Emmons(1990)에 의하면 정서표현양가성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도 이를 억제하며 갈등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양가성이란 한 대상을 원하면서 동시에 원하지 않는 접근-회피 갈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Emmons & Kaiser, 1995).

본 연구에서는 감정을 표현하고 싶으나, 감정을 표현했을 때 생길 결과를 확신하지 못하여 갈등하는 상황이라 보고, 측정은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한 정서표현양가성 척도를 최해연과 민경환(2007)이 타당화한 한국판 정서표현양가성(AEQ-K) 척도를 사용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부모화

부모화란 보스조르메니 내지(Boszormenyi-Nagy)의 맥락적 가족치료의 기본적인 개념의 하나로 가족 내에서 자녀가 한쪽의 부모나 다른 형제에 대해서 부모가 하는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부부 또는 부모자녀의 맥락적 관계를 생각하면, 자녀가 충성심에 의하여 부모를 돕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나, 부모의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과다하게 부여되는 책임은 자녀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김유숙, 1998).

인간은 윤리적 존재로서 관계 윤리를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졌으며, 인간의 성장과 발달은 이러한 윤리의 맥락에 영향을 받는다. 사람들은 맥락에서 제시하는 일정한 실존적 질서에 따라 체제를 만들어가게 되는데, 부모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자녀를 정서적으로 착취한다면 이는 실존적 질서를 어기는 것이 된다. 부모-자녀 사이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돌봄을 주고받을 수 없는 비대칭 관계로서, 부모가 자녀를 돌보면 자녀는 돌봄을 준 부모에게 같은 방식으로 되돌려 줄 수 없다(김용태, 2000). 윤리적 가족 관계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일방적이고 세심한 돌봄을 제공하게 된다. 부모는 자녀들과의 서로 대등한 주고받음을 기대하지 않으며, 자녀 양육에 자신들의 책임과 애정을 다하면서 자녀에게는 그들의 다음 세대를 잘 돌보는 역할을 기대한다(Jurkovic, 1997).

그러나 이러한 부모-자녀간의 실존의 질서가 지켜지지 않을 때 가족에게 문제가 발생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실적이지 않은 높은 기대를 하거나 윤리의 맥락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자녀를 대할 때 자녀는 충성심으로 인해서 부모의 기대에 맞추려고 한다. 부모는 아이의 의존성과 충성심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데, 이런 자녀는 어릴 적부터 과도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자녀는 부모의 욕구를 대신하느라 정작 스스로의 욕구를 살피지 못해, 자신의 발달단계에 맞는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김용태, 2000).

부모화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채워지지 못한 자신의 욕구를 자녀를 통해 대신 보상받고자 하는 부모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부모는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관계를 왜곡하여 자녀에게 배우자의 역할을 요구하거나 지속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Boszormenyi-Nagy, 1987; Jurkovic, 1997). 또한 부모-자녀간의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고, 한쪽 부모가 자녀와 감정적으로 융합되어 감정 전이가 자주 일어나거나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Minuchin, 1974). 부모의 갈등이 자녀에게 전이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약자가 된 부모는 자녀와 더 강하게 융합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 경우 자녀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부모의 보호자 혹은 동반자 역할을 하면서 일찍부터 성인의 역할을 요구받게 되는데, 이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수행하기 힘들거나 아이로서 자신이 갖는 욕구와 맞지 않을 수 있다(윤수지, 2014; 정문자, 정혜정, 이선혜, 정영주, 2012).

Jurkovic(1997)은 부모화를 자녀가 수행하는 역할 특성에 따라 물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불공평으로 구분하였다. 물리적 부모화는 아직 성인 또는 부모의 역할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성장기의 자녀들이 아이 돌봄, 장보기, 요리, 아픈 구성원이나 장애 부모 돌보기 또는 돈 벌어오기 등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기대되는 물리적 책임을 가족의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정서적 부모화는 가족원을 보호하고, 그들의 친구나 동료, 동반자, 가족의 중재자 등 가족의 사회 정서적 필요를 위해 어린 아이가 보호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서적 부모화에 비해 물리적 부모화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식되는데 이는 심부름 같이 자녀가 부모를 돕는 행동이 전통적으로 착하고 순응적인 행동으로 칭찬과 격려를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홍정희, 2008). 불공정성은 가족들이 각자의 능력과 자원부담 그리고 의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공정한 관계 내에서 책임을 나눠서 맡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물리적 부모화는 비교적 밖으로 드러나는 외현적 행동에 해당하고, 정서적 부모화는 미묘하게 내면화되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부모화 행동의 각기 다른 분류들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언제나 뚜렷한 것은 아니다(마수영, 2009).

또한 부모화는 돌봄의 지속성 정도, 책임의 연속선상에 따라 파괴적 부모화, 적응적 부모화, 비부모화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파괴적 부모화로서, 이는 돌봄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불공평함을 느끼게 될 때 나타난다. 파괴적 부모화는 발달단계에서 부적절하며 과도하게 외형적으로 표현적·물리적 책무를 떠안고 있으며 관계 윤리적으로 불공평한 상태를 의미한다. 파괴적 부모화는 알코올 가정, 빈곤가정, 이혼이나 별거 가정, 일중독, 장애인 가정, 맞벌이가정, 편부모, 재결합 가정, 아동이 많은 가정, 사회적 관계가 없는 가정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Jurkovic, 1997).

물론 적응적인 부모화는 아동에게 바람직한 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 때로 부모는 아이처럼 행동하고 아이는 부모처럼 행동함으로써 아이는 부모의 역할을 학습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 전이가 특정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아이는 지속적인 책임 과다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김용태, 2000). 하지만 부모화된 자녀는 같은 또래에 비해 특유의 유능하고 적응된 행동으로 부모화 행동의 위험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Minuchin, 1974) 이들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부모화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화된 자녀들은 우울과 낮은 자아존중감(Byng-Hall, 2002), 수치심(Wells & Jones, 2000) 등을 경험하며, 불필요한 걱정 및 소외감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불공평함을 호소하였다(Jurkovic et al., 2001). 또한 부모 자신의 욕구가 자녀에게 전이되어 자녀에게 과도한 수행을 요구할 경우, 자녀는 강박적으로 일에 매달리게 되면서 실존적 불안, 허무감, 소외감 등을 경험하기도 한다(Jurkovic et al., 1991). 또한 Levin(2009)은 그의 연구에서 어린 시절의 부모화가 성인기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연관됨을 밝혀 부모화의 장기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대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부모화 경험으로 인해 우울과 불안·신체화 증상 등이 있을 수 있으며(강지희, 2008; 공인원, 2014; 김보람, 2015; 이정선, 2011; 함광성, 2015), 친밀감의 어려움을 비롯한 대인관계의 문제를 겪을 수 있고(문비 2006; 문정덕, 2006 선진, 2013; 전현수, 2013; 하예린 2015), 수치심을 높이며(김은영, 2009; 전소연, 2009; 최아름, 2014), 안녕감에도 영향(강선모, 2013; 문소희, 2014)을 줄 수 있다.

2. 대인관계문제

1) 대인관계문제의 개념

대인관계는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반응하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대한 심리적 지향성을 말한다(Heider, 1964). Sullivan(1953)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대인관계로 보고 사람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를 형성하고 발달시킬 뿐 아니라 친밀감과 애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하였다(진미경, 2013). 이러한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할수록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남상철, 2004).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다. 대인관계문제는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대인관계를 만들거나 지속시켜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으로(박경애, 이재규, 권해수, 1998), 대인관계에서 오는 문제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개인의 삶의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진미경, 2013). 상담을 위해 방문하는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나 유형은 다양하지만 보편적으로 대인관계문제와 가장 많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대인관계문제의 원인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질과 주관적 안녕감이 높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조윤경, 2003).

신프로이드 학파는 대인관계에 미치는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으로서 특히 가족관계 및 대인관계에 주된 관심을 두었다. 이들 접근을 대표하는 학자 중 특히 대인관계를 강조했던 Sullivan(1953)은 개인의 성격 자체가 대인관계적인 것으로 보았다. 인간을 곧 대인관계로 본 그의 이론은 어떤 개인의 행동이나 생각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기에 성격의 형성은 이러한 대인적 긴장, 즉 불안으로부터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그는 모든 불안의 근원이 부적절한 대인관계에서 비롯되며 인간의 기본 동기는 그러한 불안을 감소시키거나 도피하기

위해 동기화된다고 말하고 있다(정옥경, 2001; 정혜진, 2014).

Leary(1957)는 신프로이드 학파를 계승하여 대인관계 이론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는 대인관계의 행동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기존에 Sullivan(1953)이 대인관계의 차원을 자율-통제, 애정-적대, 지배-복종, 애정-증오의 차원으로 이원화하였던 대인관계차원을 더 세분화하여 8차원의 종합적인 대인행동모형을 제안하였다(김민정, 2012; 정옥경, 2001). Alden, Wiggins와 Pincus(1990)는 대인 관계적 행동을 친애, 통제라는 2가지 차원으로 하는 대인관계 원형모형을 근거로 IIP의 127문항을 원형배열하여 8분원으로 구분하고 각 분원에 8문항씩 총 64문항을 선정하여 원형척도(IIP-Circumplex scale, IIP-C)를 구성하였다(홍상황,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 진유경, 2002). 친애차원은 다른 사람에게 과도한 친절을 베풀고 타인의 기분이나 욕구에 지나치게 민감함을 보이는 것을 나타내며, 다른 면으로는 그들과 함께 있기를 피하고 가까워지기를 힘들어하는 것을 나타낸다. 통제차원은 타인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조종하는 한편, 다른 면으로는 자기주장이 어렵고 타인에게 이용당하기 쉬움으로 정의된다(이정원, 2012). 하위 요인은 타인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과 관련된 통제지배, 자신의 안녕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관련된 자기중심성, 정서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과 관련된 냉담, 비사회적인 경향, 수줍음과 관련된 사회적 억제, 자신감, 주장성 및 자존감의 결여와 관련된 비주장성, 독립적이지 못하고 쉽게 설득, 이용당하는 것과 관련된 과순응성, 타인의 욕구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것과 관련된 자기희생, 다른 사람에 대한 지나친 관여와 관련된 과관여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홍상황,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 진유경, 2002).

2) 부모화와 대인관계문제

부모화된 자녀들은 가족 구성원에게 했던 것과 같이 친구 관계에서도 지나치게 배려하고, 많은 책임을 가지며,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이 손해를 보는 일도 감수하는 등 과도하게 기능하는 면이 있다. 친구들에게 충고나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반면, 과도하게 어른들의 세계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까닭에 자신의 나이에 맞는 사회적 기술 습득은 부족해져, 사회적

으로 고립될 수 있다(Jurkovic, 1997).

Bowlby(1973)에 의하면 대인관계에서 늘 타인을 보살피는 사람은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는 있으나,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입장에만 있지 정작 그러한 배려는 받지 못하는 입장에 있다고 한다. 타인을 보살피는 행동 자체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으나, 자신은 돌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타인을 보살피게 될 때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소외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결국, 이들은 불공정하다는 느낌과 함께 다른 사람을 돌보는 자신의 행동과 내적 욕구 사이의 모순 속에서 갈등하게 된다(Chase, 1999). 부모화된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가족 구성원들의 필요에 의해 자신의 욕구를 돌보지 않고 늘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들은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며,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을 힘들어한다(전현수, 2013).

조은영(2004)의 연구에서는 부모화를 경험한 자녀들이 겪는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부모화된 정도에 따라 구분해보았다. 친밀감 형성에 대한 어려움은 모든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 부모화 정도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임을 알 수 있고, 부모화 정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대인관계의 두려움, 소외감 등이 많이 보고되었다. 문정덕(2006)은 부모화 수준이 높을수록 통제지배, 사회적 억제, 자기희생, 과관여 수준이 높다고 밝혔다. 이는 부모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을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을 어려워하며 타인을 지나치게 배려하며,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거나 참견하려는 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비(2006)는 부모화 경험과 대인관계문제에 관한 연구에서 과배려성, 지배성/성마름의 정도가 높아짐을 보였다. 이는 부모화 경험이 많을수록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배려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는 어려워하는 한편, 타인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쉽게 감정적으로 흥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미선(2010)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화 경험과 대인관계문제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이 부모가 해야 하는 정서적인 역할을 대신하거나 자신의 욕구를 돌보기 힘든 가정환경 안에서 불공정함을 많이 느낄수록 다른 사람을 믿거나 그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가

더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하였다. 선진(2013)의 연구에서는 부모화 경험의 하위 요인인 불공평은 대인관계 문제의 하위요인인 비사교성, 과배려성, 지배성/성마름, 냉담성/의심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부모화 경험 중 가족들 중에서 서로 주고받음이 공정하지 않고 자신만 희생이 되었다는 불공평함을 높게 지각할수록 대인관계문제를 더 겪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자아분화

1) 자아분화의 개념

보웬의 가족치료이론은 가족이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발생되었으며, 자연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체계라는 점에서 자연체계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정문자, 정혜정, 이선혜, 정영주, 2012). 자연체계이론에 의하면 생명의 행위는 모든 생명체가 갖고 있는 두 가지의 상반되는 “생명력(life forces)”에 의해 생겨나고 조절된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서 개별성(individuality)은 유기체 스스로가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개체로 존재하며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이며, 연합성(togetherness)은 다른 사람과 분리되기 보다는 그들에게 의존하며 공동체로서 존재하고 싶어 하는 욕구이다(이선혜, 1998). 개별성과 연합성은 서로 다르게 작용한다. 분화는 이 개별성과 연합성이 얼마나 균형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가와 개인의 감정과정과 지적과정을 구별하여 얼마나 자기 자신을 책임지며 자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의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이영분 외, 2008).

자아는 가족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자아의 기본 구조는 어릴 적에 완성되며 부모-자녀관계는 자아를 만들어 가는데 매우 중요하다. 자아가 안정적으로 형성되면 아동은 점차 어머니와의 정서적 융합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정서적 자율성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를 Bowen(1976)은 자아분화라고 하였다(박영호, 1996). 자아분화는 보웬의 이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으로 개인의 자아분화는 정신내적 측면과 대인관계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

신내적 측면에서의 분화란 사고와 감정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대인관계적 측면에서의 분화는 자신과 타인을 분리시켜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자아분화의 정도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데 그의 부모가 원가족으로부터 어느 정도 분화를 달성하였는지, 그리고 개인이 부모나 형제, 친척과의 갖는 관계에 의해 자아분화 성취 정도가 달라진다(이선희, 2000).

보웬은 자아분화 수준의 개념을 기본분화와 기능분화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기본분화(basic differentiation)는 주로 어린 시절부터 만들어진 자아에 의해 이루어지며, 가족들과 정서적으로 얼마나 분리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번 일정한 수준으로의 분화가 이루어지면 상황적 변화에도 잘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으며 부모의 분화 수준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반면 기능분화(functional differentiation)는 현재에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개인이 가족에게서 물려받은 기본분화 수준보다 높게 기능할 수도 또는 더 낮게 기능할 수도 있다(정문자, 정혜정, 이선희, 정영주, 2012). 기능분화는 주어진 시간과 장소 및 상황에서 얼마나 목표지향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며 환경에 크게 좌우된다(김용태, 2000).

자아분화의 정도는 개인의 지적체계를 정서체계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반영한다. 정신내적으로 분화수준이 낮은 경우 주관적 감정에서 객관적 사고를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정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행동을 하기 쉽다. 반면 분화수준이 높은 경우 사고와 감정이 분리되어 있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제력과 객관성을 보인다. 대인관계에서 분화수준이 낮은 경우 다른 사람과 쉽게 융합될 수 있으며 자신과 타인을 분리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만의 신념을 갖지 못하고 타인의 의견에 쉽게 동조한다. 반면 분화수준이 높은 경우 자신만의 분명한 입장을 지니고 자신의 신념과 목표에 따라 행동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융합되지 않는다(정문자, 정혜정, 이선희, 정영주, 2012).

보웬은 가족들이 서로 의존하는 관계에서 벗어나 얼마나 자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의 감정적인 과정을 분화라고 한다면 개인의 융합된 상태는 가족들 간에 감정적으로 분리되지 못하고 서로 고착되어 있는 경우라고 설명한다. 융합된 가족은 다른 가족 구성원을 자신의 일부로 보면서 개인의 분리와 성장을 방해하

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김혜숙, 2003). 이렇듯 감정적으로 분화되지 못하면 가족관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정서적 문제를 습관적으로 억누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감정 반사적인 행동을 보임으로써 개인의 삶에서 진정한 자기(solid self)로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될 수 있다(이영분 외, 2008). 가족원들 간 분화되지 못하고 융합되어 있을수록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며, 자신이 속한 가족관계와 다른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며, 상황 변화에 쉽게 정서적 지배를 받는다. 이러한 불안정한 정서는 가족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 인간관계에서도 나타나게 된다(김정택, 심혜숙, 1992).

2) 부모화와 자아분화

보웬은 미분화 가족 자아군(undifferentiated family ego mass)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이러한 가족은 ‘지나친 가까움(over-closeness)’ 때문에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정문자, 정혜정, 이선희, 정영주, 2012). 분화수준이 낮은 가정은 자신들의 불편한 상황과 감정을 견디지 못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이들은 작은 외부의 자극에도 쉽게 타인과 감정적으로 연합하려고 하므로 이들 가족이 가진 감정체계는 아주 강하고 분리하기 어려운 상태로 남게 된다(김용태, 2000).

Bowen은 부모-자녀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중심에 분화가 있다고 보았으며, 관계의 불균형으로 인한 가족의 갈등은 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이지선, 2015). 가정에서 부모-자녀라는 세대간의 경계가 가족의 심리적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부모가 부부관계에서의 실패 또는 다른 갈등을 겪고 있거나 자신들의 정서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는 경우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얻기가 힘들다(김순재, 1996).

자아분화는 어느 한 시기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화 경험처럼 오랜 기간 가족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장은영, 2012) 영향력이 세대를 걸쳐 이어진다(정경연, 2007). 부모화 경험은 자녀가 부모를 대신하여 가족의 문

제를 해결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였던 경우로 이는 가족과의 건강한 독립을 방해하고 오히려 가족과 자신이 융합될 수 있다(문은미, 2008). 또한 부모화는 부모가 채우지 못한 자신의 욕구를 자녀로부터 충족시키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때, 부모화된 가족에서의 부모-자녀관계는 자기에 대한 핵심 감정을 발달시키지 못한 채 자녀와 미분화되기 쉽다(Miller, 1981). 미분화되고 자기도취적인 부모는 그들의 자녀를 방치하고, 착취하며, 또한 자녀와 융합되기 쉽다(Jurkovic, 1997). 부모화 경험은 부모와의 의존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부모로부터의 자아분화를 늦추고, 스스로 자아정체감을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주게 된다(Fullinwider-Bush & Jacobvitz, 1993).

조은영(2005)의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화 수준이 높은 자녀일수록 충성심이 강하고, 자아분화의 정도는 낮았으며, 가족의 삼각화에 더 빈번히 개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부모로부터 충분히 심리적 독립을 하지 못함으로써 가족 간의 갈등에 더 많이 관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부모화 경험은 자아분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불공평을 많이 느낄수록 자아분화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는 불공평이 높을수록 정서적 단절과 가족퇴행 수준이 낮아져, 가정에서 자신이 일방적으로 헌신한다는 불공평한 느낌이 클수록 가족과의 건강한 분리와 상호작용을 방해함을 알 수 있다(구경호, 유순화, 2012; 김은지, 2013; 문은미, 2006). 부모화된 성인자녀의 자아분화를 연구한 박효순(2014)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갈등으로 인해 만들어진 삼각관계 속에서 불안을 흡수하고, 가족과의 융합적 갈등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부모화 경험을 해온 경우 자녀는 건강한 자아분화를 이루기 어려워진다고 한다. 부모화된 자녀의 낮은 자아분화 수준은 정서적·사회적·신체적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하는 데도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에 의해 부모화 경험과 자아분화와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다.

3) 자아분화와 대인관계문제

사고와 감정의 분리가 적절하지 못한 개인일수록 대인관계에 역기능적일 수 있으며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개별성을 희생한다(남

상철, 2004). 또한 대인관계적으로 자아분화가 발달되지 못한 사람은 자신과 타인을 분리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념에 따른 독립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견해에 쉽게 동조되며 정서적으로 의존적이고 역기능적인 행동을 하기 쉬운 반면, 자아분화가 발달된 사람은 상대방과 정서적 융합을 이루지 않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한다(장은영, 2012). 이와 같이 자아분화수준이 낮으면 다른 사람과 적절히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사회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제석봉(1989)이 자신이 개발한 자아분화척도를 사용하여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고 그 결과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적으며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이 많다고 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분화 수준은 대인관계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남상철, 2004; 최혜련, 2004),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들이 대인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이 낮은 반면에 자기가 태어난 가정과 정서적으로 단절될수록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더 많이 겪을 수 있다(윤선미, 2010). 즉,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가 적은 반면,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경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적응적인 대처방법을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인관계문제를 더 경험할 수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김민정(2010)의 연구에서도 자아분화가 대인관계문제와 그의 각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졌을수록 대인관계문제가 적게 나타나고 자아분화가 잘 되지 않을수록 대인관계문제를 많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분화는 대인관계문제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를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배미예, 이은희, 2009; 이지은, 2006; 조연주, 2011). 또한 자아분화가 낮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쉬우며, 타인과 정서적 융합이 되기 쉬우므로 대인관계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이지민, 2010). 이와 같이 자아분화는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4. 정서표현양가성

1) 정서표현양가성의 개념

정서(emotion)는 우리 삶의 일부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정서를 느끼며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 이러한 정서를 표현한다(Wood, 2013). 이러한 정서는 비합리적이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조직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이경희, 김봉환, 2009). 개인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결국은 정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본다면,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삶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알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정서표현(emotional experssive)은 경험하는 정서를 외부로 표현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정서표현에 적극적인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삶의 만족감이 높고 심리적 안정감이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서 더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는다고 한다. 또한 자기이해를 높여 적응적인 사회적 의사소통이 활발해지며 그에 따른 대처노력을 더 많이 하게 된다(장정주, 김정모, 2009). 반면에 대인관계에서 정서표현을 잘 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억제하게 되면, 긍정적 감정보다 부정적 감정을 많이 경험하며, 사회적 적응에도 어려움 있고, 대인관계에서도 거리감과 소외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이유정, 2011).

이와는 달리 정서표현이 정서상태로 인한 각성을 해소하기보다 더욱 강한 정서상태를 초래할 수 있으며,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대인관계에서 더 많이 불안하며, 조절 또는 억제되지 못한 과도한 정서표현이 심리적 장애를 증가시킬 수 있다(Gottman, 1993; Jerome & Liss, 2005)는 연구들도 있다. 이러한 상반된 연구 결과들은 정서를 표현하고 표현하지 않는 것 그 자체만으로 부적응적이다 이분법적으로 단정 지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정서표현성 자체가 단순히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행동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표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심리적 부적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나 이러한 욕구가 사회적 기준이나 다른 목적들과 갈등을

일으켜 이를 억제해야 할 때 개인은 심리적, 신체적 질환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Pennebaker, 1985).

King과 Emmons(1990)는 정서표현에 관련된 개인의 노력은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표현하지 않으려는 욕구가 개인의 내면에서 갈등을 일으켜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유주현, 2000). 그러면서 정서표현양가성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도 이를 억제하며 갈등하는 것’이라 정의하면서 정서표현양가성 척도(AEQ)를 개발하였다. 정서표현양가성 척도는 정서표현을 원하지만 억제하는 것, 정서표현을 원하지 않았지만 표현해버린 것, 정서표현을 한 후에 후회하는 것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김미진, 2009). 정서표현양가성을 겪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타인으로부터 도움과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신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여 친밀한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게 되면서 상대방과의 감정적 교류가 원활하지 못하다. 그로 인해 주변 사람의 지지를 끌어내기가 힘들며, 지지를 받더라도 이를 수용하지 못하거나 다른 의미로 해석하게 된다(Emmons & Colby, 1995). 즉, 정서표현양가성을 가진 사람들의 심리적 기저에는 자신이 감정을 표현해도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라는 문화사회적 환경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해연과 민경환(2007)은 정서표현양가성 척도의 타당화 연구를 실시하였고, 정서표현에 대해 양가적이게 되는 동기가 다르다는 관점에서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정서를 표현한 후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무능감을 포함하는 문항으로, 정서표현을 억압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는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자기 보호적 측면보다는 타인과의 관계를 의식하거나 체면 유지를 위해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정서표현양가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정서를 표현하는 그 자체보다는 정서표현양가성이 심리적 고통과 더 높은 관련이 있으며,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을 느끼는 경우 우울증, 강박증, 신체화 장애와 불안과 같은 심리적·신체적 문제를 겪으며, 삶의 만족감도 줄어든다고 한다(Emmons & Colby, 1995; Katz &

Campbell, 1994; King & Emmons, 1990).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정서표현 양가성은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며(박주하, 2010; 유주현, 2000; 이영식, 2015), 우울감을 높이며(김미진, 2009; 김현주, 2013. 최연숙, 2015) 결혼만족도를 낮춘다(윤달아, 2012; 이은희, 2012). 또한 대인관계문제를 높일 수 있으며(윤하영, 2013; 정경아, 2015; 정혜진, 2014) 대학생들의 사회적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이정선, 2012).

2) 부모화와 정서표현양가성

부모화된 자녀들은 부모를 포함한 타인들의 기대와 필요에 따라 행동해왔던 까닭에 정작 자신의 감정과 욕구는 소외되기 쉽다. 부모로부터 필요한 정서적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데 따른 외로움을 느끼며,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부모에게 표현하지 못한다. 이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기 힘들게 만들며, 우울, 불안을 비롯한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Jurkovic, 1997).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조은영(2004)의 연구에서는 불공평을 많이 지각하는 사람이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나친 책임의식, 불안과 분노, 불신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경미, 이하나, 정주리, 정현주, 이기학(2006)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화의 하위 요인 중 불공정성을 많이 느낄수록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자녀의 관계에서 특히 돌봄 및 주고받음에 있어 불공정성을 많이 경험할수록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자유롭지 못하고 어려움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현아(2011)는 그의 연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화 경험의 하위 요인들이 정서발생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확인하였고, 그 결과 불공정성을 높게 지각하는 경우 정서표현 양가성을 포함한 정서발생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부모화된 청소년은 부모에게 돌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를 배려하고 보살피는 관계를 갖게 되므로, 이러한 부모와 자녀의 역할전이는 자녀로 하여금 양가감정을 경험하게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의 부모화 경험과 안녕감에 관한 문소희(2014)의 연구에서도 부모화 경험은 정서표현양가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화 경험이 정서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거나, 후회 또는 갈등하는 정도를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정서표현양가성과 대인관계문제

정서를 억제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상대방에게 습관적으로 자신의 정서를 숨기는 사람들은 주변사람들과 가까워지기 힘들며, 갈등을 피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호의도 피하게 되므로 서로 친밀감을 형성할 기회 역시 놓치게 된다(Kalat, 2007).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친밀해지는 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도움이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한다. 그로 인해 솔직한 자신을 드러내는데 주저하고 친밀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 한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를 잘못 지각하여 받아들이고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Emmons & Colby, 1995).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정서표현양가성은 대인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신채영, 유순화, 윤경미, 2013; 장정주, 김정보, 2008). 이는 정서표현양가성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경희와 김봉환(2010)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조절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다. 그 결과 정서 명확성이 낮고 정서 강도는 높은 혼란 집단이 정서표현양가성이 높고 대인관계 능력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표현에 대한 무능감과 정서를 표현하면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대인관계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대학생의 애착에 관한 연구에서 김용희(2014)는 정서표현양가성이 대인관계에 연관됨을 입증하여 정서를 표현하고 싶지만 이를 억제하고 갈등하는 학생들은 대인관계에서 더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선화(2014)의 연구에서 정서표현양가성과 대인관계문제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여, 부모의 비지시적 반응과 정서표현양가성과 대인관계문제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오충광과 정남운(2007)은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고 하였다. 전현수(2013)의 연구

에서는 정서표현양가성이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을수록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도 높아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정서표현양가성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 위치한 5개교 대학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해당 학교로 방문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직접 실시가 어려운 경우는 담당자에게 연구의 취지 및 실시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여 설문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설문은 2015년 9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설문시간은 10~1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총 46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416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무응답 또는 불성실하게 응답한 16부를 제외하고, 총 40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남학생 178명(44.5%), 여학생 222명(55.5%)으로 여학생이 다소 많았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 166명(41.5%), 2학년 117명(29.3%), 3학년(19.3%), 4학년 이상 40명(10%)으로 1, 2학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00)

	구분	N(=400)	%
성별	남	178	44.5
	여	222	55.5
학년	1학년	166	41.5
	2학년	117	29.3
	3학년	77	19.3
	4학년 이상	40	10.0

2. 측정 도구

1) 부모화 척도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부모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Jurkovic과 Thirkield(1999)가 PQ(Parentification Questionnaire, Sessions & Jurkovic, 1986)을 바탕으로 다차원적 분석을 위해 개발한 FRS-A(Filial Responsibility Scale-Adult)를 조은영(2004)이 번안한 내용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물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불공평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과거와 현재 각 30문항씩 총 60문항을 묻고 있다.

하위요인 중 물리적 부모화는 집안일이나 가족원 돌봄과 같은 기능적인 역할을 묻고 있으며, 정서적 부모화는 정서적으로 부모나 가족원을 위로하며 가족 문제에 자주 개입되었는지를 묻고 있으며, 불공평은 가족 안에서 책임이 공평하지 못하고 본인만 희생이 되었는지 등을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척도는 5점 Likert식으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화 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경험을 다루고 있으므로 과거 척도 3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87로 나타났다.

표 III-2. 부모화 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 (N=400)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물리적 부모화	10	1, 3, 6, 8, 13, 16*, 19*, 22, 27, 29	.69
정서적 부모화	10	2, 5, 9, 12, 14*, 17, 18, 24, 26, 30	.71
불공평	10	4, 7, 10, 11, 15*, 20, 21*, 23, 25, 28	.83
전체	30		.87

*은 역산 처리 문항임

2) 대인관계문제 척도

대인관계문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Horowitz 등(1998)이 개발하고 Alden, Wiggins, Pincus(1990)가 재구성한 대인관계문제검사를 홍상환 등(2002)이 표준화한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Short form of the KIIP Circumplex scales, KIIP-SC)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모두 8개의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 5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 요인은 타인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과 관련된 통제지배(PA), 자신의 안녕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관련된 자기중심성(BC), 정서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과 관련된 냉담(DE), 비사회적인 경향, 수줍음과 관련된 사회적 억제(FG), 자신감, 주장성 및 자존감의 결여와 관련된 비주장성(HI), 독립적이지 못하고 쉽게 설득, 이용당하는 것과 관련된 과순응성(JK), 타인의 욕구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것과 관련된 자기희생(LM), 다른 사람에 대한 지나친 관여와 관련된 과관여(NO)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94로 나타났다.

표 III-3. 대인관계문제 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 (N=400)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비주장성	5	1, 3, 5, 11, 16	.88
냉담	5	2, 8, 9, 15, 18	.84
사회적 억제	5	4, 12, 17, 31, 36	.83
자기중심성	5	6, 7, 10, 13, 22	.84
과순응성	5	14, 23, 34, 37, 39	.79
통제지배	5	19, 21, 27, 30, 33	.78
자기희생	5	20, 24, 25, 32, 40	.74
과관여	5	26, 28, 29, 35, 38	.75
전체	40		.94

3) 자아분화 척도

본 연구에서는 Bowen 이론의 자아분화를 구성하는 다섯 개의 구성개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개발한 제석봉(1989)의 자아분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36문항과 5개의 하위요인(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자아통합,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은 지적 체계가 정서적 체계에서 얼마나 분화되어 있는가의 정도를 나타낸다. 둘째, 자아의 통합은 개인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서적으로 압력을 받을 때 얼마나 자신의 신념과 원칙을 잘 지킬 수 있는지의 정도를 나타낸다. 셋째, 가족투사는 미분화된 부모가 자신의 불안을 특정 자녀에게 투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넷째, 정서적 단절은 부모에게 애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정서적 거리가 있는지, 부모에 대한 반항 등을 나타낸다. 다섯째, 가족퇴행은 가정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가족 구성원들이 역기능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지 여부를 묻는다. 이 척도는 5점 Likert 식으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가 잘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86으로 나타났다.

표 III-4. 자아분화 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 (N=400)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7	1*, 2*, 3, 4*, 5*, 6*, 7*	.69
자아의 통합	6	8, 9, 10, 11*, 12*, 13	.66
가족투사	6	14*, 15*, 16*, 17*, 18*, 19*	.84
정서적 단절	6	20, 21*, 22*, 23*, 24*, 25*	.79
가족 퇴행	11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84
전체	36		.86

*은 역산 처리 문항임

4) 정서표현양가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한 정서표현양가성 척도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 AEQ)를 최해연과 민경환(2007)이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정서표현양가성(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 AEQ-K)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정서표현양가성 척도는 타당화 과정을 거쳐 자기방어적 양가성, 관계관여적 양가성의 두 가지 요인의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자신의 정서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른다거나, 정서를 표현했을 때 거부되고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하고 있으며,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정서표현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에 신중함을 기하려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5점 Likert 방식으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93으로 나타났다.

표 III-5. 정서표현양가성 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 (N=400)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자기방어적 양가성	13	1, 2, 3, 4, 5, 6, 7, 9, 10, 11, 12, 14, 15	.91
관계관여적 양가성	8	8, 13, 16, 17, 18, 19, 20, 21	.85
전체	21		.93

3. 자료 분석

자료의 처리 및 분석은 SPSS Statistic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분석 기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각 척도의 전체와 하위 영역별로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산출하고,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부모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와 정서표현양가성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부모화, 자아분화, 정서표현양가성, 대인관계문제의 관계를 살펴 보고 부모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였다.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인 부모화, 자아분화, 정서표현양가성, 대인관계문제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인의 최소값, 최대값,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여 표IV-6에 제시하였다. 대학생의 부모화 평균은 2.27(SD=.50)로 보통 수준의 부모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분화의 경우 평균이 3.50(SD=.36)으로 나타나 보통 이상의 자아분화 수준을 보였다. 정서표현양가성의 평균은 3.02(SD=.72)로 보통 이상의 양가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문제의 평균은 2.34(SD=.58)로 보통 수준의 대인관계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결과 (N=400)

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M)	표준편차(SD)
부모화	1.30	3.90	2.27	.50
자아분화	2.36	4.50	3.50	.36
정서표현양가성	1.05	5.00	3.02	.72
대인관계문제	1.02	4.00	2.34	.58

2)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먼저 각 변인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인 부모화, 자아분화, 정서표현양가성,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IV-7에 제시하였다.

우선 대학생의 부모화, 자아분화, 정서표현양가성, 대인관계문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부모화와 자아분화는 유의미한 부적상관($r=-.31, p<.01$)을 보였고, 부모화와 정서표현양가성도 유의미한 정적상관($r=.26, p<.01$)을 보였다. 이는 부모화가 자아분화 수준을 낮추며, 정서표현양가성은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화와 대인관계문제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r=.16, p<.01$)을 나타내어 부모화 정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 역시 더 많이 겪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아분화와 대인관계문제도 유의미한 부적 상관($r=-.41, p<.01$)을 보였으며, 정서표현양가성과 대인관계문제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r=.46, p<.01$)을 보였다. 이는 자아분화 수준이 낮고, 정서표현양가성을 많이 느낄수록 대인관계문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관분석을 통해 부모화, 자아분화, 정서표현양가성, 대인관계문제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으므로,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기본 조건이 충족되었다.

표 IV-7. 부모화, 자아분화, 정서표현양가성, 대인관계문제의 상관 (N=400)

	1	2	3	4
1. 부모화	1			
2. 자아분화	-.31**	1		
3. 정서표현양가성	.26**	-.24**	1	
4. 대인관계문제	.16**	-.41**	.46**	1
M	2.27	3.51	3.02	2.34
SD	.51	.36	.73	.58

** $p<.01$

2. 매개효과 검증

다음으로 부모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와 정서표현양가성이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의 검증 절차를 따랐다. 첫째, 1단계에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사이에 의미 있는 영향관계가 있어야 한다. 둘째, 2단계에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에 의미 있는 영향관계가 있어야 한다. 셋째, 3단계에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같이 투입했을 때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2단계에서의 영향력에 비해 줄어드는 동시에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본다. 이 때,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게 줄어들면 부분매개효과,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1) 부모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부모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1단계로 독립변인인 부모화가 매개변인인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부모화가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므로($\beta = -.315$, $p < .001$) 매개분석을 위한 1단계가 충족되었다.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부모화가 종속변인인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때 부모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므로($\beta = .167$, $p < .001$) 매개분석을 위한 두 번째 단계가 충족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부모화와 매개변인인 자아분화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종속변인인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매개변인인 자아분화가 추가되었을 때, 부모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자아분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beta = -.407$, $p < .001$)하였다. 따라서 부모화와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완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표 IV-8. 부모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N=400)

단계	모형	B	β	t	R ²
1단계 (독립→매개)	부모화 → 자아분화	-.223	-.315	-6.610***	.099
2단계 (독립→종속)	부모화 → 대인관계문제	.190	.167	3.383***	.028
3단계 (독립,매개 → 종속)	부모화 → 대인관계문제 자아분화 → 대인관계문제	.045 -.654	.039 -.407	.819 -8.481***	.177

** $p < .01$, *** $p < .001$

완전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방법에 비해 보다 직접적인 검증방법인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Sobel의 Z값은 5.34로 대학생의 부모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의 완전매개효과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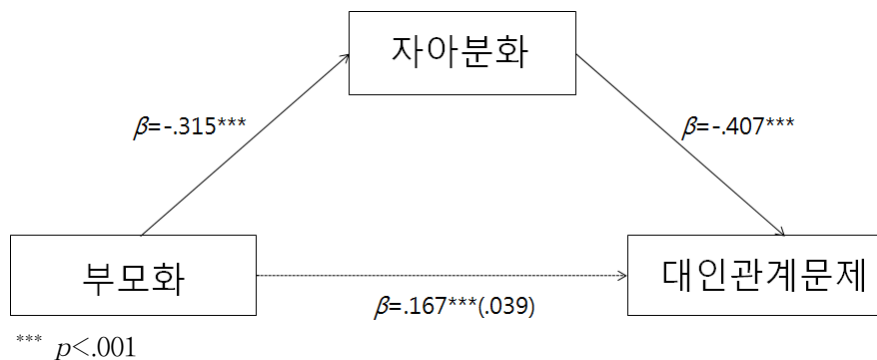


그림 IV-3. 대학생의 부모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의 완전매개효과

2) 부모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부모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1단계로 독립변인인 부모화가 매개변인인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부모화가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므로($\beta=.266, p<.001$) 매개분석을 위한 1단계가 충족되었다.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부모화가 종속변인인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때 부모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므로($\beta=.167, p<.001$) 매개분석을 위한 두 번째 단계가 충족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부모화와 매개변인인 정서표현양가성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종속변인인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매개변인인 정서표현양가성이 추가되었을 때, 부모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정서표현양가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beta=.454, p<.001$)하였다. 따라서 대학생의 부모화와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완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표 IV-9. 부모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N=400)

단계	모형	B	β	t	R ²
1단계 (독립→매개)	부모화 → 정서표현양가성	.380	.266	5.507***	.071
2단계 (독립→종속)	부모화 → 대인관계문제	.190	.167	3.383***	.028
3단계 (독립,매개 → 종속)	부모화 → 대인관계문제 정서표현양가성→대인관계문제	.053 .362	.046 .454	1.010 9.861***	.219

** $p<.01$, *** $p<.001$

완전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Sobel의 Z값은 4.88로 대학생의 부모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완전매개효과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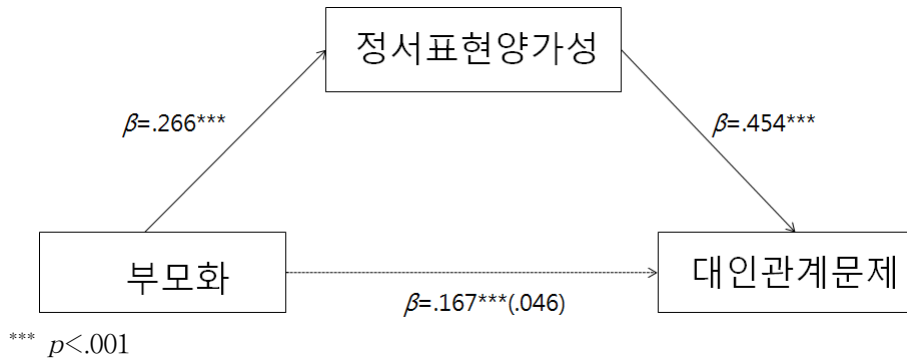


그림 IV-4. 대학생의 부모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완전매개효과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부모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와 정서표현양가성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화 척도, 대인관계문제 척도, 자아분화 척도, 정서표현양가성 척도 등의 설문문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1.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부모화와 자아분화 간에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성장기의 부모화 경험이 자녀가 적절한 시기에 정서적으로 가족과 분화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화가 높은 자녀일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낮으며, 가족의 삼각화에 개입될 경향이 더 강했다는 조은영(2004)의 연구 결과에서도 보듯이 부모화는 자녀가 가족에게서 분화되어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능하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 부모화 경험이 자아분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구경호, 유순화, 2012; 김은지, 2013; 문은미, 2006)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대학생의 부모화와 정서표현양가성도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부모화가 자녀가 정서를 표현하는데 갈등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자녀들이 부모의 돌봄과 관심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나이에 맞지 않게 부모를 위로하고 보살피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표현하는 데 혼란을 느끼게 됨을 알 수 있다. 부모화 경험이 자녀로 하여금 정서표현양가성을 경험하게 한다는 선행연구들(김경미, 2006; 문소희, 2014; 이현아, 2010)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대학생의 부모화와 대인관계문제도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부모화가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비(2006)의 연구에서 부모화 정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다

른 사람을 지나치게 배려하거나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어울리기를 어려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쉽게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을 있음을 밝혔다. 부모화 경험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련성을 다룬 다른 선행연구들(문정덕, 2006; 선진, 2013; 지미선, 2010)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자아분화와 대인관계문제도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 가족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분화가 덜 이루어지면,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자아분화 수준이 낮으면 더 높은 대인관계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김민정, 2010; 남상철, 2004; 윤선미, 2010; 이지민, 2010; 최혜련, 2004). 대학생의 자아분화, 대인관계 및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이서정(2013)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대처하며 대학생활에도 적응을 잘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대학생들의 자아분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 대인관계 개선 및 만족스러운 대학생활을 위해 필요한 부분임을 시사한다.

정서표현양가성과 대인관계문제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정서를 표현하고 싶지만 억제하며 갈등을 겪는 속에서 더 많은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결과이다. 이는 정서표현양가성이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신채영, 유순화, 윤경미, 2013; 이경희, 김봉환, 2010; 장정주, 김정모, 2008)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갈등하며 겪는 어려움이 대인관계문제 뿐만 아니라 그 외 심리적 문제 및 적응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보았을 때(유주현, 2000; 최해연 2008) 정서표현양가성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대학생의 부모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자아분화는 부모화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즉, 부모화는 대인관계문제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으나, 자아분화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 자아분화 수준이 낮아질수록 대인관계문제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화는 개인의 자아분화 수준을 낮추고, 낮은 수준의 자아분화가 또다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자녀가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여 지나친 책임을 가졌던 경험이 가족과의 정서적 분리를 방해

하여, 가족 이외에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에도 독립된 생각이나 행동 및 솔직한 감정 표현을 어렵게 만든다. 이런 성향이 곧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학생 시기에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한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한 점을 볼 때, 대인관계문제 개선에 자아분화 수준을 높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대학생의 부모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정서표현양가성은 부모화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부모화가 대인관계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정서표현양가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모화가 정서표현양가성을 높이며, 높은 정서표현양가성은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화 경험과 청소년의 안녕감과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이 매개하며(문소희, 2013), 정서표현양가성이 대학생의 애착과 대인관계문제를 매개한다는 김용희(2012)의 연구와도 관련이 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지나친 책임감으로 인해 자신의 정서를 억누르고 표현하지 못했던 경험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거나, 상황에 맞게 감정과 기분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가져오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명료하게 알고 이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대인관계문제 개선에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화와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이는 상담 장면에서 대인관계문제를 호소하는 대학생들에게 그들의 부모-자녀관계 및 자아분화 수준을 파악하여 개선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바이다. 부모화와 같이 가정 내에서 부모를 대신하여 정서적·물리적으로 과도한 역할이 주어졌던 경우 다른 사람의 필요와 요구에 맞추느라 정작 자신의 발달수준에 맞는 발달을 이루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부모화와 같은 경우는 이미 과거에 지나간 일들로 지금 시점에서 상담자가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다. 그 대

신 현재 시점에서 변화가 가능한 자아분화 수준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부모들과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얽혀있는 자녀들은 점차 부모로부터의 융합에서 벗어나 자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찾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신의 가족관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자기이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함으로써 대인관계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부모화와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밝혔다. 이는 대인관계문제를 다루는 상담 장면에서 정서적 개입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가정 내에서 부모화 경험처럼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고 다른 사람의 요구를 우선시 했던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의 경우, 현재에 대인관계에서도 그와 같은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소극적이거나 갈등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개인은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정서적 교류를 나누기 어렵고,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도 힘들며, 대인관계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갈등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을 느끼는 대학생들의 경우, 먼저 안전하게 자신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도록 한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주저하고 표현하지 못한 다양한 정서를 상담 장면에서 표현해볼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더불어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표현하는 훈련, 자기주장훈련 등 정서를 다루어주는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를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제주도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표집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 결과를 전체 대학생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모두 자기 보고식 질문지로서 설문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 보이고자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는 부모화와 같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깊이 연구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사례 연구 등의 방법을 통해 검사방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모화 질문지는 외국의 척도를 우리말로 번안한 것으로 한국의 사회문

화적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각 사회의 생활양식에 따라 구체적인 부모화의 양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우리 사회의 가족 문화가 반영된 타당한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화 및 각 척도의 하위 요인들에 관해서는 살펴보지 않았다. 척도의 하위 요인들에 의해서 좀 더 다양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만큼 하위 영역별로 세분화된 연구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최근 연구에서는 부모화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 입각하여 부모화의 부정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나, 후속 연구들에서는 부모화의 긍정적 측면 및 부모화의 부정적 효과를 완충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강선모 (2013). **부모화와 안녕감의 구조관계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지연 (2011).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분노표현 및 대인관계 문제 간의 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지희 (2008). **부모화경험이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매개변인으로**. 동신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공인원 (2014). **대학생의 부모화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불일치와 수치심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경호, 유순화 (2012). **청소년의 부모화 경험과 자아분화의 관계**. **상담학연구**, 13(6), 2763-2776.
- 권석만 (2010). **인간관계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 권석만 (1995). **대학생의 대인관계 부적응에 대한 인지행동적 설명모형**. **학생연구**, 30(1), 38-63.
- 김경미, 이하나, 정주리, 정현주, 이기학 (2006). **갈등적 독립수준, 자기주장성,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으로 살펴본 부모화의 하위 집단별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3(1), 19-32.
- 김미진 (2009). **여대생의 자기침묵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과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 (2010). **자아분화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람 (2015).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 : 정서적 소진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재 (1996). **청소년의 기질 및 부모 양육태도와 자아분화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여량 (2013).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옥경 (2013). **정서표현에 대한 정서관련태도와 정서표현갈등의 영향**.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용태 (2000). **가족치료 이론**. 서울: 학지사.
- 김용희 (2014). 대학생의 애착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11), 291-316.
- 김유숙 (2002). **가족치료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김은영 (2009). **청소년의 부모화 경험과 자기개념 및 수치심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지 (2014). **청소년의 부모화 경험과 지각된 부모양육대도 및 자아분화 수준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택, 심혜숙 (1992). Murray Bowen의 정신역동적 가족치료 모델, 「서강대 인간이해」 1992. 3월호.
- 김종운, 양민정 (2014). 대학생의 애착과 자기효능감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2), 283-299.
- 김현주 (2013). **고등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숙 (2003). **가족치료 이론과 기법**. 서울: 학지사.
- 남상철 (2004). **양육태도와 자아분화 수준이 청소년의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마수영 (2009). **자녀의 부모화와 심리적 강인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소희 (2014). **지각된 부모화 경험이 청소년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은미 (2008). **부모화 경험과 자아분화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동신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 비 (2006). **부모화 경험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정덕 (2006). **성장기의 부모화 경험과 자기효능감이 청소년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애, 이재규, 권해수 (1998).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연구. **청소년상담연구**, 63, 1-281.

- 박금란 (2012). 부모의 자율성지지,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과 자기정체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호 (2006). 한국적 부모-자녀관계가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 : 부자유친성정, 애착, 우리의식, 자아분화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주하 (2010). 정서표현갈등과 대인불안 및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효순 (2014). 부모화 된 미혼성인자녀의 자아분화를 돕기 위한 보웬적 가족치료.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미예, 이은희 (2009).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대인관계 및 우울/불안 간의 관계 :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0(1), 85-112.
- 선진 (2013). 부모화 경험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채영, 유순화, 윤경미 (2013).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12), 131-151.
- 안재희 (2015). 대학생의 특성분노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충광, 정남운 (2007). 정서표현갈등과 상담자 지각이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3(1), 115-136.
- 유은영, 윤치근, 양유정 (2012). 일부지역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간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 13(1), 274-283.
- 유주현 (2000).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과 사회적지지 및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달아 (2012). 정서표현 양가성과 결혼 만족도의 관계 :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선미 (2010). 자아분화수준이 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수지 (2014). 성인 초기 미혼 여성의 심리적 부모화와 이성관계 만족도 : 자기방어적 양가성의 매개효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하영 (2013). 완벽주의와 정서표현양가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양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혜영 (2013).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 김봉환 (2010).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조절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서 명확성, 정서강도 및 정서주의의 군집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369-384.
- 이동욱 (2015). 대학생의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서정 (2013). 대학생의 자기분화와 대인관계,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혜 (1998). 한국에서의 Bowen 이론 적용에 대한 고찰. 자아분화(自我分化)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 가족치료학회지**, 6(2), 151-176.
- 이선혜 (2000). Bowen 이론의 문화적 보편성과 특수성에 관한 一考. **한국 가족치료학회지**, 8(1), 159-188.
- 이선화 (2014). 부모의 비지시적 반응과 아동의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분, 신영화, 권진숙, 박태영, 최선령, 최현미 (2008). **가족치료: 모델과 사례**. 서울: 학지사.
- 이영식 (2015). 대학생의 정서표현 양가성과 경험회피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대인관계문제를 조절변수로 하여. 신한대학교 지식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정 (2011). 내면화된 수치심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선 (2011).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이 우울과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 : 자기위로능력의 조절효과검증.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선 (2012). 정서표현 양가성, 정서조절 양식 및 대학생활의 사회적 적응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원 (2012).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 정서표현양가성, 정서조절양식의 매개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민 (2010). 가족건강성, 자아분화, 대인관계와 대학생 우울간의 관계구조. 상담학연구, 11(3), 1271-1287.
- 이지선 (2015).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와 자아분화 및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은 (2006). 고등학생의 또래예측과 자아분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희 (2012). 자기침묵과 정서표현양가성이 결혼만족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아 (2011). 청소년의 부모화 경험과 정서인식, 정서표현신념, 정서표현양가성, 정서조절방략 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은영 (2012).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율성, 자아분화, 자기주도 학습능력 및 진로탐색행동 간의 구조관계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정주, 김정모 (2008). 정서적 자각, 표현, 및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과 대인관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697-714.
- 전소연 (2009). 부모화 경험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 수치심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현수 (2012). 심리적 부모화가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불안정 성인애착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경아 (2015). 정서표현 양가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경연 (2007). 부모 및 자녀의 자아분화수준과 아동이 지각한 세대간 가족관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문자, 정혜정, 이선혜, 전영주 (2012). 가족치료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옥경 (2001). 완벽주의 성향이 불안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진 (2014).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경험회피와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제석봉 (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윤경 (2002). 한국인의 나의식-우리의식 척도개발 및 타당화 : 개별성-관계성, 심리사회적 성숙도 및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은영 (2004). 부모화된 자녀의 심리적 특성 및 가족 내 영향력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은영, 정태연 (2005). 부모화된 자녀의 개인적 및 가족관계적 특성: 자기보고 및 상담을 통한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833-853.
- 조은주 (2011).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대인관계문제의 연관성.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미선 (2010). 성장기의 부모화경험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미경 (2013). 대학생의 성인 애착과 대인관계문제 및 이성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놀이치료학회지: 놀이치료연구, 16(4), 285-300
- 최경하 (2007). 대학생의 주변사람들 표상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 : 분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상진, 김혜숙, 유승엽 (1994). 부자유친 성정과 자녀에 대한 영향력,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 논문, 65-82.
- 최상진 (2000). 한국인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 최아름 (2014). 부모화 경험이 자기분화를 매개로 내면화된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 중학생과 대학생 비교.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연숙 (2015). 대학생의 불안정 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지선 (2011). **대학생의 우울 취약성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 일반적 자기 초점주의의 조절효과**.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해연 (2008).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과 억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해연, 민경환 (2007). 한국판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척도의 타당화 및 억제 개념들 간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71-89
- 최혜련 (2004). **부모-자녀 갈등 정도와 자아분화가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예린 (2015).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이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함광성 (2015). **중학생의 부모화 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상환,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 진유경 (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KIIP-SC) 구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923-940.
- 홍정희 (2008). **성장기 부모화 경험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owlby, J. (1973).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Basic Book, New York.
- Boszormenyi-Nagy I., & Spark, G. (1973). *Invisible loyalties: Reciprocity in intergenerational family therapy*. New York: Harper & Row.
- Byng-Hall, J. (2002). Relieving parentified children's burdens in families with insecure attachment patterns. *Family Process*, 41(3), 375-388.
- Chase, N. D. (1999). An Overview of theory, research, and societal issues. In, N. D. Chase(Ed). *Burdened children: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of parentification*. 3-33. Sage.
- Davies, P. T. (2002). Commentary: Conceptual links between Byng-Hall's theory of parentification and the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Family Process*, 41(3), 551-555.
- Emmnos, R. A., & Colby, P.(1995). "Emotional conflict and well-being: Relation to perceived availability, daily utilization and observer reports of social

- support”, *Journa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594-602.
- Bullinwider-Bush, N., & Jacobvitz, D. B (1993). The transition to young adulthood : Generational boundary dissolution and female identity development. *Family Press*, 32(1). 87-103.
- Gottman, J. M. (1993). “The Role of Conflict Engagement, Escalation, and Avoidance in Marital Interac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6-15.
- Heider, F. (1964).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Harper & Row.
- Hooper, L. M., Marotta, S. A., & Lanthier, R. P. (2008). Predictors of growth and distress following childhood parentification: A retrospective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7, 693-705
- James, W. Kalat., Michelle N. Shiota. (2007). **정서심리학**. (민경환 외 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Jerome, E. L., Liss, M. (2005). “Relationships between sensory processing style, adult attachment, and cop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6), 1341-1352.
- Julia, T. Wood. (2013). **대인관계와 소통**. (배현석 역). 서울: 한경사.
- Jurkovic, G. J. (1997). *Lost childhoods: The plight of the parentified child*. New York: Brunner/Mazel.
- Jurkovic, G. J., Thirkeild, A., & Morrell, R. (2001). Parentification in adult children of divorce : A multidimensional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 245-257.
- Katz, I. M., & Campbell, J. D (1994).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well-being: Nomothetic and idiographic tests of the stress-buffering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3), 513-524.
- Kerr, M. E, & Bowen, M. (1988). *Family Evaluation*. New York: Norton.
- Kuperminc, G. P., Jurkovic, G. J., & Casey, S. (2009). Relation of filial

- responsibility to the personal and social adjustment of Latino adolescents from immigrant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3(1), 14–22.
- King, L. A.,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64–877.
- Leary, T. F. (1957).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New York. Ronald.
- Levine, Amir (2009). *Parentification and adult psychosocial life distress*.
 Doctoral dissertation of Yeshiva University.
- McMahon, T. J., & Luthar, S. S. (2007). Defining Characteristics and Potential Consequences of Caretaking Burden Among Children Living in Urban Povert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7(2), 267 - 281.
- Miller, A. (1981). *Prisoners of childhood: The drama of the gifted child and the search for the true self*. New York: Basic Books.
- Minuchin, S. (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Pennebaker, J. W. (1985). Traumatic experience and psychosomatic disease: Exploring the role of behavioural inhibition, obsession, and confiding. *Canadian psychology*, 26, 82–95.
- Stein, J. A., Riedel, M., & Rotheram-Borus, M. J. (1999). Parentification and its impact on adolescent children of parents with AIDS. *Family Process*, 38(2), 193–208.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W. W. Horton.
- Sunnie, Giles. (2012). *The Effects of Parentification, Attachment, Family-of-Origin Dysfunction and Health on Depression: A Comparative Study between Gender and the Ethnic Groups of South Koreans and Caucasian Americans*. Master dissertation of Brigham Young University.
- Teyber, E (2006). *Interpersonal process in therapy: An Intergrative model(5th ed)*. Pacific Grove, Ca: Books/Cole.

Wells, M. & Jones, R. (2000). Childhood parentification and shame-proneness:
A preliminary study.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8,
19-27.

단국대 대학생들, 진로·대인관계 고민 상담 많아(2013. 4. 6. 11:53:53)

<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830>

<Abstract>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Parentification on Interpersonal Problems :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Kim In Yeong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Adviser: Choi Bo Young

This study aimed to examine if self-differentiation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mediates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parentification on interpersonal problems. For this study, survey was conducted by 460 university students who live in Jeju-do. Among the collected 416 surveys, the 400 surveys were used for the analysis. Study measurement tools are the followings: parentification scale, interpersonal problem scale, self-differentiation scale,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scale.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18.0.

A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have a look at the relation between descriptive statistics and variables over each variabl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hich Baron and Kenny(1986) recommended, was execut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on the relation between parentification and interpersonal problem. Lastly, Sobel test was executed to

verify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To sum up,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the followings.

First, parentification is positively related to self-differentiatio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interpersonal problems.

Secondly, as the result of testing the mediating effect, total mediating effect appears both in self-differentiation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 other words, although parentification does not directly affect interpersonal problems, it indirectly affect through the medium of self-differentiation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 conclusion, we verified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parentification on interpersonal problems. And, it implies that development of self-differentiation and emotional approach should be needed to solve interpersonal problem.

Key Words : Parentification, Interpersonal Problems, Self-differentiatio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부 록

부록 1. 부모화 척도

부록 2. 대인관계문제 척도

부록 3. 자아분화 척도

부록 4. 정서표현양가성 척도

부록 1. 부모화 척도

※ 다음 문항들은 당신이 자란 가족에서의 경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험들은 다 독특하기 때문에 옳고 틀린 답은 없습니다.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V'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종종 그렇다	대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족을 위해 쇼핑(장을 보거나 옷을 사는 등)을 많이 했다.	1	2	3	4	5
2	때로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다.	1	2	3	4	5
3	형제들의 숙제를 내가 많이 도와줬다.	1	2	3	4	5
4	부모님은 내게 잘 대해주셨지만, 나는 내 욕구를 이루기 위해 그분들에게 의지할 수 없었다.	1	2	3	4	5
5	나는 나이에 맞지 않게 성숙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1	2	3	4	5
6	나는 종종 가족 중 누군가를 신체적으로 보살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일이 많았다(예) 씻기기, 먹이기, 또는 입히기).	1	2	3	4	5
7	식구들은 나의 입장을 고려해 주지 않는 것 같았다.	1	2	3	4	5
8	나는 가족을 위해 돈을 번 적이 있었다.	1	2	3	4	5
9	나는 종종 가족의 중재자라고 느꼈던 적이 많았다.	1	2	3	4	5
10	나는 가족들로부터 실망한 적이 많았다.	1	2	3	4	5
11	나는 가족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희생하는 적이 많았다.	1	2	3	4	5
12	가족들은 그들의 문제를 항상 나한테 가져오는 것 같았다.	1	2	3	4	5
13	나는 종종 식구들 빨래를 했다.	1	2	3	4	5
14	가족 중에 누군가가 화났을 때 나는 일반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1	2	3	4	5
15	나에게 문제가 생길 때 부모님은 많은 도움을 주셨다.	1	2	3	4	5
16	나는 집에서 거의 식사준비를 하지 않았다.	1	2	3	4	5
17	부모님은 다투실 때 종종 내가 자기의 편이 되도록 하셨다.	1	2	3	4	5

18	가족들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도, 나는 그들에 대한 책임을 느꼈다.	1	2	3	4	5
19	나는 형제들을 돌보라는 부탁을 거의 받지 않았다.	1	2	3	4	5
20	때로는 부모님보다 내가 더 책임감이 있는 듯했다.	1	2	3	4	5
21	내 식구들은 나를 잘 이해하는 것 같았다.	1	2	3	4	5
22	나의 부모님은 내가 형제들을 가르치기를 기대하셨다.	1	2	3	4	5
23	나의 부모님은 종종 집안일을 돕고자 하는 나의 노력을 비판하셨다.	1	2	3	4	5
24	나는 우리 식구들이 내가 없이는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생각을 한 적이 많았다.	1	2	3	4	5
25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나의 부모님을 신뢰하기가 힘들었다.	1	2	3	4	5
26	나는 부모님의 다툼 중간에 끼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았다.	1	2	3	4	5
27	나는 나의 가족의 재정적인 문제를 도왔다. (예)구입하거나 청구서를 지불할 때).	1	2	3	4	5
28	나는 가족에게 받기보다 주는 것을 더 많이 했다.	1	2	3	4	5
29	가끔 집안의 책임 때문에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가 힘들 때도 있었다.	1	2	3	4	5
30	나는 가족에서 아이라기보다는 어른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더 많았다.	1	2	3	4	5

부록2. 대인관계문제 척도

※ 다음 질문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느낌이나 생각들에 관한 문항입니다. 아래 문항을 잘 읽으시고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숫자에 'V'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2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	1	2	3	4	5

3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한 요구라도 하기 어렵다.	1	2	3	4	5
4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어렵다.	1	2	3	4	5
5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내 주장을 내세우기가 어렵다.	1	2	3	4	5
6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도 진심으로 걱정해주기가 어렵다.	1	2	3	4	5
7	다른 사람의 입장을 지지해주기가 어렵다.	1	2	3	4	5
8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느끼기가 어렵다.	1	2	3	4	5
9	다른 사람에게 친근감을 느끼기가 어렵다.	1	2	3	4	5
10	다른 사람의 요구를 먼저 들어주기가 어렵다.	1	2	3	4	5
11	내 주장을 내세우기가 어렵다.	1	2	3	4	5
12	다른 사람들을 너무 어려워한다.	1	2	3	4	5
13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같이 기뻐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14	다른 사람의 감정이 상할까봐 내 주장을 내세우기가 어렵다.	1	2	3	4	5
15	다른 사람에게 호감이나 애정을 표현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16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당하지 못하다.	1	2	3	4	5
17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를 자주 피한다.	1	2	3	4	5
18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1	2	3	4	5
19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다른 사람과 마찰이 있을 때가 많다.	1	2	3	4	5
20	다른 사람들을 너무 잘 믿는다.	1	2	3	4	5
21	내 주장만 너무 내세울 때가 많다.	1	2	3	4	5
22	누가 나에게 의지할 때 받아주기가 싫다.	1	2	3	4	5
23	너무 잘 속는 편이다.	1	2	3	4	5
24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애쓴다.	1	2	3	4	5

25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는다.	1	2	3	4	5
26	너무 존경받고 싶어 한다.	1	2	3	4	5
27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자주 조종하거나 이용한다.	1	2	3	4	5
28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있으면 참견하고 싶어진다.	1	2	3	4	5
29	친한 사람에게 너무 매달린다.	1	2	3	4	5
30	의견차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자주 다툰다.	1	2	3	4	5
31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다.	1	2	3	4	5
32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불행을 보면 도와주려고 너무 나선다.	1	2	3	4	5
33	다른 사람들을 너무 시기하고 질투한다.	1	2	3	4	5
34	다른 사람들의 말을 너무 쉽게 따른다.	1	2	3	4	5
35	늘 주목받고 싶어 한다.	1	2	3	4	5
36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 긴장한다.	1	2	3	4	5
37	뚜렷한 주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이 끌려 다닌다.	1	2	3	4	5
38	다른 사람의 험담을 너무 많이 한다.	1	2	3	4	5
39	다른 사람들에게 자주 이용당한다.	1	2	3	4	5
40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나 때문이라고 자책할 때가 많다.	1	2	3	4	5

부록3. 자아분화 척도

1. 1~13번의 질문은 **최근 2년간** 전반적인 행동, 경험 및 의견을 묻는 문항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숫자에 'V'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최근 2년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랬다
1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마음 내키는 대로 결정하는 일이 많다.	1	2	3	4
2	나는 말부터 해놓고 나중에 가서 그 말을 후회하는 일이 많다.	1	2	3	4
3	나는 비교적 내 감정을 잘 통제해 나가는 편이다.	1	2	3	4
4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편이다.	1	2	3	4
5	나는 욕을 하고 무엇이든 부수고 싶은 충동을 자주 느낀다.	1	2	3	4
6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에 잘 말려드는 편이다.	1	2	3	4
7	나는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화를 잘 내는 편이다.	1	2	3	4
8	나는 남이 지적할 때보다 내가 틀렸다고 여길 때 의견을 더 잘 바꾼다.	1	2	3	4
9	나는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보다 내 의견을 더 중시한다.	1	2	3	4
10	논쟁이 일더라도 필요할 때에는 내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1	2	3	4
11	내 말이나 의견이 남의 비판을 받으면 얼른 바꾼다.	1	2	3	4
12	내 계획이 주위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잘 바꾼다.	1	2	3	4
13	주위의 말을 참작은 해도 어디까지나 내 소신에 따라 결정한다.	1	2	3	4

2. 14~36번의 질문은 아동기, 청소년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행동, 경험 및 의견을 묻는 문항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숫자에 'V'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과거-현재까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랬다
14	자라면서 부모님이 나에게 대해 근심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1	2	3	4
15	부모님은 내가 미덥지 못해서 지나치게 당부하는 일이 많았다.	1	2	3	4
16	우리 부모는 형제들 중 유독 나 때문에 속을 많이 썩었다.	1	2	3	4
17	부모님은 내게만 문제가 없다면 아무 걱정이 없겠다는 말을 많이 한다.	1	2	3	4
18	내가 처한 상황은 부모님이 전부터 입버릇처럼 말해오던 대로이다.	1	2	3	4
19	내 걱정이나 근심은 부모님이 예전부터 내게 말하시던 그 대로이다.	1	2	3	4
20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면 대단히 불편하리라 생각했다.	1	2	3	4
21	가정을 떠나는 것이 독립할 수 있는 좋은 길이다.	1	2	3	4
22	나는 부모님 슬하에서 하루빨리 독립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았다.	1	2	3	4
23	부모님과 자주 다투기보다는 안 보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했다.	1	2	3	4
24	나는 자라면서 집을 나가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껴왔다.	1	2	3	4
25	나는 자라면서 부모님과 별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1	2	3	4
26	내가 자랄 때 우리 가족은 각자 자기의 본분을 다했다.	1	2	3	4
27	우리 가족은 심각한 일이 있어도 가족 간에 금은 잘 가지 않았다.	1	2	3	4
28	가족 간에 말썽이 있어도 서로 상의해가며 잘 해결해 왔다.	1	2	3	4

29	우리 가정에는 소리를 지르거나 주먹다짐을 하는 일이 드물었다.	1	2	3	4
30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부모님은 차분하게 잘 처리하셨다.	1	2	3	4
31	우리 가정은 대체로 화목하고 단란했던 편이다.	1	2	3	4
32	우리 가족은 각자 의견이 달라도 서로 존중해주는 편이다.	1	2	3	4
33	나는 어릴 때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1	2	3	4
34	우리 가족은 사소한 문제 때문에도 잘 싸웠다.	1	2	3	4
35	부모님은 나를 낳았을 뿐, 교육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1	2	3	4
36	우리 가족들은 서로에게 별 관심이 없었다.	1	2	3	4

부록4. 정서표현양가성 척도

※ 다음에는 여러분이 평소 가질 수 있는 생각과 행동에 관한 문항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을 읽고, 평소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숫자에 'V'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적당한 말을 찾기 어렵다.	1	2	3	4	5
2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지만 그로 인해 나 자신이 당황하게 되거나 상처받게 될까 걱정된다.	1	2	3	4	5
3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걱정된다.	1	2	3	4	5
4	종종 내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을 표현할 수가 없다.	1	2	3	4	5
5	내 문제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정말 이야기하고 싶지만, 때때로 그러지 못한다.	1	2	3	4	5
6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지만, 적당한 말을 찾기가 어렵다.	1	2	3	4	5

7	종종 내가 느끼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만, 웬지 망설여진다.	1	2	3	4	5
8	비록 가까운 사람들에게 온당한 일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나의 부정적인 느낌을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	1	2	3	4	5
9	다른 사람에게 그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말하지 못한다는 것을 종종 느낀다.	1	2	3	4	5
10	내 속에 있는 두려움과 감정들을 감춰두려 하지만,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1	2	3	4	5
11	정서적 반응을 좀 더 즉각적으로 드러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것 같다.	1	2	3	4	5
12	내가 그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했더라면 하고 회상할 때가 있다.	1	2	3	4	5
13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나면 죄책감을 느낀다.	1	2	3	4	5
14	나의 애정을 좀 더 겉으로 표현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걱정된다.	1	2	3	4	5
15	나는 화를 참으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1	2	3	4	5
16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나면, 그것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	1	2	3	4	5
17	누군가 나의 신경을 건드릴 때, 느끼는 바를 말하고 싶더라도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려 한다.	1	2	3	4	5
18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할 때조차, 나는 그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한다.	1	2	3	4	5
19	내가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남자/여자친구가 알았으면 하면서도, 남자/여자친구에 대한 질투심을 억누르려 한다.	1	2	3	4	5
20	화를 낼까 하다가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한다.	1	2	3	4	5
21	때때로 기분에 따라 행동하고 싶더라도 나는 언제나 기분을 다스리려 노력한다.	1	2	3	4	5